

# 전세기 잇단 취항... 무안국제공항 위용 갖춘다

## 전남도, 中 이어 日 전세기 유치 나서

### 노선 확대 서남권 거점공항 도약 기대

무안국제공항이 잇단 전세기 취항으로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면서 모처럼 국제공항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4월 들어 기존 제주, 상해, 북경 등 3개 정기노선에 외에 천진, 상하이, 타이베이 등 중화권 4개 부 정기 노선이 운항돼

많은 하루 5편의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경기 침체로 항공 수요가 줄어 신규 노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 관광객

을 상대로 한 맞춤형 관광상품이 호응을 얻으면서 중국을 오가는 전세기가 잇따라 취항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세기는 여행 성수기나 연휴에 1회성 노선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취항한 중국 전세기는 부정기 노선이지만 무안과 천진을 오가는 노선은 1년간 매일 운항하는 정기성 노선이다. 심양 노선 또한 주 2회 운항할 계획으로 무안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적자 항공사 재정 지원, 관

광업계 인센티브 제공, 전세기 입차료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전남개발공사에서 운영중인 면세점을 확장하고 중국 관광객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판매점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신규 노선 취항을 위해 일본을 방문해 저비용 항공사를 포함한 항공사 및 여행업체를 상대로 무안공항을 홍보했다. 특히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를 연계한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중국 의료관광 개발을

위해 인문매체 대표들을 초청해 사전 답사를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윤진보 전남도 건설부재국장은 "무안공항을 이용한 전세기가 잇따라 취항함에 따라 국내 기존 항공사와 일본 여행사의 부정기 노선 운항도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등 앞으로 신규 취항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며 "머지않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kwangju.co.kr

## 전국 수산 경영인 1만여명

### 내달 목포서 한마당 큰 잔치

#### 1~3일 수산인대회

전국 수산인 경영인들의 최대 축제인 목포에서 열린다. 목포시는 '제9회 한국 수산업 경영인대회'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목포 유달 경기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블루오션 수산업,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국의 수산인 1만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마당 큰 잔치를 펼치게 된다. 우정과 화합의 한마당, 시립무용단 공연, 초청가수 공연, 농어 5만마리 치어방류, 수산 OX 퀴즈, 풍선 바벨탑 세우기·인간극장 만들기, 체육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또 '수산업 발전을 위한 해양수

산부 역할'이란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비롯해 수산 발전 기원제, 수산인 가족 음악회 등 수산인들 화합의 자리도 마련된다. 환경 캠페인 전개와 목포복지재단과 어업인 교육문화복지재단에 기금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우수 수산물 기자재 전시회, 지역특산물 전시회 등 상설행사가 마련돼 시민들에게 지역의 수산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대회기간 1만여명의 방문객이 목포를 찾아 이에 따른 직·간접 경제효과가 21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행사가 되도록 행정력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

## '녹색에너지 자립섬' 사업 본격화

### 완도 청산·노화도 조성...업체와 투자협약

완도 청산도와 노화도를 녹색에너지 자립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된다. 24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종식 완도군수, 안병덕 코오롱글로벌 대표, 황희태 ㈜한화건설 국내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산·노화도 녹색에너지 자립섬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청산도와 노화도에 각각 60MW, 20MW의 풍력, 지열,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전력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은 물론 생산된 잉여전력을 판매해 지역민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은 그동안 탄소제로섬 조성을 위해 나도 8개 지역에 태양광 및

풍력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복합발전 시설을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 이번 녹색에너지 자립섬이 본격 추진되면 신재생분야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지역산업과의 연계 육성도 가능할 전망이다. 코오롱글로벌 안병덕 대표는 "그동안 축적해 온 풍력발전과 패시브하우스 등 차별화된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환경훼손 없는 에너지 자립섬을 조성하고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 보급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에너지 자립섬을 조성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요트스쿨 인기** 목포시가 목포해양대와 세한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요트스쿨에 참가한 교육생들이 조종 실습교육을 받고 있다. 요트스쿨은 6월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운영되며 만 14세 이상 시민이나 학생은 160명까지 무료다. <목포시 제공>

## 해남 우항리공룡박물관 '가족 탐방' 참여관 선정

해남 우항리공룡박물관이 '2013년 우리가족 박물관 탐방' 참여관으로 선정됐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사)한국박물관협회, 지역 박물관협의회가 함께 추진하는 '2013년 우리 가족 박물관 탐방 행사'는 전국에서 총 241개의 박물관과 박물관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공·사립 대학박물관, 미술관의 관람객 증대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과 가족 단위의 박물관 탐방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오는 10월31일까지 운영된다. 탐방가족이 참여관으로 선정된 박물관과 미술관을 방문해 관람한 후

현관 및 표지판을 배경으로 인증 사진과 탐방 후기를 작성해 행사사이트(www.emuseum.go.kr/tour)에 등록하면 된다. 행사기간이 종료되면 11월 중 등록해서 건수, 참여 가족 현황, 참여 박물관의 다양성, 방문 후기 등 심사를 통해 총 61가족(최대방문 및 우수후기)을 선정해 3만~1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시상하고, 우수운영기관 3개관을 선정해 표창한다. 우항리공룡박물관 관계자는 "많은 가족들이 공룡박물관을 찾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설과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생산량 감소 양파 가격 '고공행진'

### 무안 양파 서울 도매시장 kg당 2500원 거래...작년의 3배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양파의 가격이 사상 초유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무안군에 따르면 양파값이 연일 치솟으면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 가격이 kg당 2500원 선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kg당 700원 대와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20kg짜리 한 방에 평상시 1만3000원선에서 거래되던 소비자 가격도 4만원을 웃돌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안을 비롯한 양파 주산지가 극심한 냉해피해로 생산량

이 감소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조생종 양파의 생산이 기상이변으로 1주일 정도 늦어지는데 저장양파 파파저 조기 소진된 것도 가격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수입산 양파가 풀리고 무안산 양파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이 달 하순에서 다음 달 초순 사이가 돼야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양파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수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지역농협 등을 상대로 이익금 환수를 요구하는

농민단체의 목소리도 높다. 무안군농민회는 이날 오전 무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파값 고공행진의 수혜자는 도매시장을 장악한 일부 상인들과 농협이 보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무안 양파의 경우 지역농협이 일괄 구매해 판매하는 '양파매취사업'을 통해 이뤄지면서 양파가격 폭등에 따른 수익이 고스란히 농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배워서 느낀 소중한 지혜 생활에 유익하죠"

#### 해남 여성대학 3기 70명 수료식

제3기 해남군 여성대학 수료식이 지난 22일 여성회관 회의실에서 수료생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된 여성대학은 수료율이 81%에 달하고 10차례의 강의에 모두 참석한 개근상 수상자도 40%에 달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수료식에선 80% 이상 출석률을 보인 60명에게 수료증이 교부됐고, 29명이 개근상을 수상했다.

수료생 정혜옥(47·삼산면)씨는 "여성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라는 생각으로 여성대학에서 배우고 느낀 소중한 지혜들을 가정과 사회에서 유익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1~3기 수료생들의 재수강 요청이 많아 제4기 여성대학부터는 기존 수강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새로운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할 방침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산불이 사라지면 행복이 살아납니다

작은 불씨가 우리 모두의 행복을 태워버립니다.  
 생냥, 라이터는 두고 가고... 개방된 등산로만 이용하고... 취사 대신 도시락을 즐기고...  
 꺼진 불씨도 꼼꼼하게 다시 보고 남의 불씨도 꼭 챙겨주세요.  
 산불이 사라지면 산림이 살아납니다. 산불이 사라지면 행복이 살아납니다.

## 산불예방! 녹색미래를 지키는 행복한 습관입니다.

**산불신고 전화 080-880-4119**

관리하기 힘든 산!  
 국가(산림청)에서 책임있게 드립니다.  
 063)620-4631